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1:00 - 12:00

□ 장 소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3층 아름인도서관

□ 참석자 : 10명

○ 참 석 : 9명

전구훈 위원장, 박유정 위원, 이현덕 위원, 김관욱 의원, 홍인실 위원, 현은주 의원, 임상혁 의원, 김영례 위원(관장), 이영란 위원

○ 불 참 석 : 1명

임규옥 위원

○ 직 원 : 1명

윤지영 부장

□ 개 회 선 언

-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총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시작하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계심을 안내하고, 전구훈 위원장이 2026년 제 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위원들의 안부와 더불어 공유하고자 하는 관련사업들을 나누다. 보고에 앞서서 2026년 6~8월 카드뉴스 동영상에 대해 공유하다.

□ 보 고 사 항

- 전차 회의록 보고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다.
- 2026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사업과 결산을 보고하다.
- 윤지영 부장 : 2026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결산을 보고하다.
- 김영례 관장 : 마침 오늘 복지관 경로식당 생신잔치가 있었는데 이현덕 위원님이 함께 참여

하셔서 감사했다.

- 이현덕 위원 : 오랜만에 복지관 어르신들을 뵙고 함께 선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 임상혁 위원 : 다문화 아이들이 경계성 기능 장애를 같이 갖고 있기도 하다. 부모들이 다 일을 하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윤지영 부장 : 현재 기관의 다문화 가정에서도 경계성 장애를 보이는 친구들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심리치료를 연계해 하고 있다.
- 임상혁 위원 : 우리 녹색병원에 미등록 아이들 위주의 치료비사업이 있다.
- 홍인실 위원 : 맞다. 저 또한 필요한 지역아동들을 위한 녹색병원 치료비 사업을 잘 활용하고 있다.
- 임상혁 위원 :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아이가 팔꿈치 뼈가 부러졌는데 돈이 들어가니 부모님께 이야기 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있어 많이 안타까웠다. 혹시 다른 복지관에서도 다문화사업을 다하고 있나?
- 김영례 관장 :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 기관의 경우는 후원기관이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10년 가까이 다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의 복지관들은 개별 사례관리로 다문화 가정과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중랑구는 중랑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관은 개별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협력하며 선생님과 함께 모니터링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박유정 위원 : 중랑구 다문화 가정 중에는 몽골가정이 많다. 중국동에 몽골학교가 있었고, 중랑구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 많은 몽골가정들이 거주하는 것 같다.
- 현은주 위원 : 맞다. 우리 중국초에도 다문화가정 중 몽골학생들이 전체의 80%나 된다.
- 임상혁 위원 : 지역에 아동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지하기 보다 모른척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현은주 위원 : 사회적 기능이 없어진 것 같다. 지역에 아동들에 관한 어려움들은 각 가정에서 알리기 보다 학교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
- 임상혁 위원 : 요즘에 아동들을 위한 운동회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그런 민원 때문이 아닌 것 같다.
- 현은주 위원 : 다행히도 학교 행사시 지역에서 많이 배려해주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다.
- 김관식 위원 : 학교 인근 지역에는 주택들이 많아서 아파트 보다 민원이 적기에 학교 행사에 대해 배려해주는 부분이 큰 것 같다.
- 전구훈 위원장 : 청년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 윤지영 부장 : 우리 기관은 두 개의 청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고립청년과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참여자 욕구와 상황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김영례 관장 : 고립을 겪은 청년이 고립은둔청년 소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립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연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캠페인도 당사자인 고립청년이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다.

- 전구훈 위원장 :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있나?
- 윤지영 부장 : 몇 년전 고립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운영한바 있으나 진행이 쉽지 않았다. 시간약속과 사업장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모습을 보았다.
- 전구훈 위원장 : 복지관에 고독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일이 있는가?
- 김영례 관장 :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나 연계된 고시원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이 예상되는 분들을 만나 고독사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임상혁 위원 : 일본에는 은퇴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퇴임 후의 삶이 이처럼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박유정 위원 : 중랑구에도 퇴임하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세무직봉사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 면목복지관도 연계해 볼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다.
- 전구훈 위원장 : 추경할 부분은 없는가?
- 윤지영 부장 : 돌봄특화사업 및 수시지원사업 등에 4분기 2차 추경이 예상되겠다.

- 복지관 재단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다.

- 2026년 4분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다.

- 윤지영 부장 : 2026년 4분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다.
- 전구훈 위원장 : 4분기 운영위원들에게 도움 청할 것은 없는가?
- 김영례 관장 : 평소에도 지역에서 운영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셔서 자주 뵈고 도움도 받고 있다. 복지관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구훈 위원장이 논의를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치고다. 이상으로 의안 논의를 완료하고 12시 폐회를 선언하다.

<관련 사진>



2026년 3차 운영위원회 진행 사진